학원 선행학습 금지 "공교육 정상화" vs "학습선택권 침해"

학원 선행 교습 금지 개정안 공방
입시경쟁 조장, 사교육비 부담 커져
선행·심화 기준 없어 혼란 가중화
고액과외 증가 등 격차 커질수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시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교육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습 수준에 따른 교육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선행과 심화 학습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지난 9월 28일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을 하거나 학생 모집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위반하면 교육감이 6개월 이내에서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 규정을 새로 뒀다. 방과후학교는 고교 겨울방학 과정의 선행교육을 허용하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 범위를 광고에서 수업으로 넓히는 것이다. 2014년 제정된 현행법은 학교의 선행교육과 교육과정을 벗어난 평가를 금지하지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만 규제한다.

◆선행 경쟁이 사교육비 키워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교육과 레벨테스트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학교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이 입시 경쟁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행학습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전국 초중고 수학교육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수학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도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발표하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입시경쟁 조장 행위 등을 학원법상 금지·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학원가, 교육 선택권 침해 반발

학원업계는 정상적인 예습과 심화 학습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학원 교습을 금지·정지하는 핵심 조항의 삭제와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조영환 학원총연합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사교육을 억압하고, 학생이 배우고 싶은 내용까지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학 선행·심화 전문 학원 생각하는황소도 같은 날 반대 입장문을 내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학원은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수학 선행·심화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원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선행학습의 판단 기준이다. 경기 고양시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수학처럼 개념이 이어지는 과목은 선행과 심화의 경계를 나누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원 수업을 제한하더라도 개인과외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액 과외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의 교육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수능 국·수 변별력 유지, 영어 난도 조정"

입시업계, 올해 수능 전망·전략 제시
국어·수학 변별력 확보 기조 이어질 것
작년 '불수능' 영어 난도 조정 주목


지난달 20일 고3 수험생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에서 국어와 수학은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 기조가 유지되는 반면, 영어는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수능 영어가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어려웠고 올해 9월 모의평가는 1등급 비율이 크게 높아질 만큼 쉬웠던 만큼, 본 수능은 두 시험의 중간 수준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국어는 2023학년도를 제외한 4개 학년도에서 변별력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 수학 역시 통합수능 도입 이후 5년 연속 변별력을 확보하는 출제 기조가 이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역시 국어와 수학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킬러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낯선 유형이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는 난이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전체의 3% 수준에 그치면서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올해 9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은 15.54%로 지난해 수능보다 12.43%포인트(p) 높아졌고, 6월 모평(4.13%)과 비교해도 크게 상승했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장은 "9월 모평 영어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고, 본 수능은 9월 모평보다 상당히 어렵고 6월 모평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로학원도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9월 모평이 지나치게 쉬웠던 만큼 실제 수능에서 난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습 전략에서는 국어가 전체 시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지목된다. 임 대표는 "문항별 풀이 시간을 미리 정하고, 막히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

차량·식사비 등 지원… 학교소풍 부담 던다

서울시교육청, 체험프로그램 운영
3.3억 투입… 70개교 3850명 모집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급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차원에서 버스를 빌리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은 연말까지 '2026 학급소풍DAY'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지원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3억3300만원을 투입한다. 학교에서 교육원까지 왕복하는 전세버스를 제공하고, 한강일부 활동은 점심도 지원한다. 참가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 학부모의 비용 부담도 줄였다.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축령산본원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대성리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한강수상안전교육장 등 5곳에서 진행한다.

축령산본원교육원에서는 에코어드벤처와 피크닉 오리엔티어링(지도를 보며 정해진 지점을 찾아가는 활동)을, 대성리교육원에서는 야외 마음열기학급활동과 암벽활동·양궁·뉴스포츠 등을 진행한다. 퇴촌야영교육원은 숲속 모험시설과 생태지도를 활용한 활동을 마련했다.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에서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 세계시민교육과 생활영어를 배우고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한강수상안전교육장에서는 수상안전 이론과 실습, 장미공원 연계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진행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교육원에는 간호인력과 이송 차량을 배치한다. 학교와 인솔교사가 준수해야 할 안전 절차도 별도로 안내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교육재정 필요성 홍보 나서

교부금 개편 논의에 배움·안전 강조
방송광고·지하철 등 전방위 홍보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맞춰 시민 대상 홍보에 나선다.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과 시설 개선, 학생 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방송광고와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보도전문채널에는 15초 영상광고를 내보내고,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 스크린도어에도 광고를 싣는다.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는 숏폼과 카드뉴스를 올린다. 광고 문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져야 합니다"다.

이는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개편하려는 데 따른 대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각 부서가 요구한 9657억원은 담지 못했다"고 전했다.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도 알린다. 현행 연동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늘거나 줄면 국가와 교육계가 이를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두자는 내용이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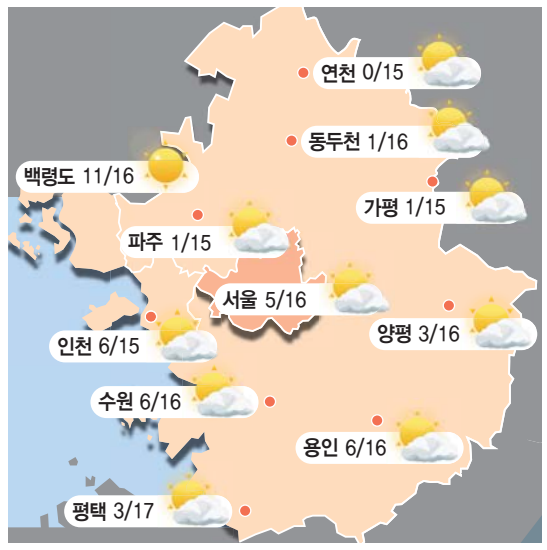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7 | 해짐 / 17:25

11월
11일 (水)
음력 : 10월 3일

수도권 날씨
5 ~ 1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란 재공격 시 5배 더 강력…걸프국은 현상 유지 선호"
▲파라과이 신임 대통령 내각 모든 장관들에게 사퇴서 제출 요구 /사진 뉴시스
▲젠슨황, 불륜 사전 대비했나…"1년 전부터 '성추문 대응 홍보사' 고용"
▲10월 中 수출 35.2% 급증…"누적 무역흑자 1조 달러 돌파"
▲일본 AI 유니콘 사카나AI, 내년 가을 도쿄·나스닥 상장 추진
▲한·일 국립감염병연구소, 감염병 공동연구 협력 강화